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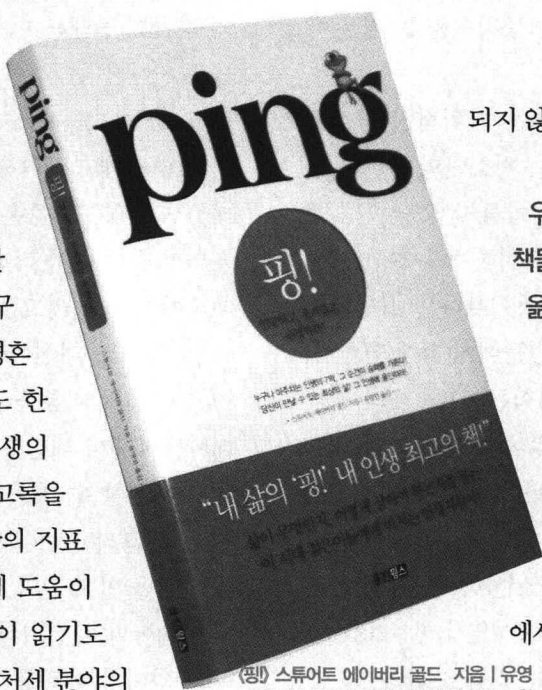
스튜어트 에이버리 골드의 《핑!》

주입식 행복 강요하는 처세서

글_이규용북칼럼니스트, 번역가

더 나은 삶을 원할 때,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을 때,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여 그 답답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 조언을 구하기도 하지만 독서를 통해 지친 영혼을 위로하며 용기와 희망을 얻기도 한다. 또한 우리는 영적 스승이나 인생의 깨달음을 얻은 인물들의 전기나 회고록을 읽으며 그들의 삶을 거울삼아 내 삶의 지표로 삼기도 하며, 처세나 자기계발에 도움이 될 내용을 담은 책들을 찾아 틈틈이 읽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기계발·처세 분야의 책들이 다소 건조할 수 있는 비소설 분위기에서 벗어나 재미있는 동화나 우화적인 내용을 끌어들이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미 우리는 어려서부터 안데르센과 이솝은 물론 시대를 초월한 동서양의 술한 동화작가들의 작품을 읽으며 미래의 내 모습을 꿈꾸며 성장했다. 그리고 보면 동화나 우화는 시공을 초월하여 어린이는 물론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일러주는 다양한 교훈이 담긴 훌륭한 처세서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부쩍 세계 출판시장에 재미있는 동화나 우화를 차용한 비즈니스 처세서나 자기계발서들이 꾸준히 출간되면서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 과거 '내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내용의 책이 세계 독자들에게 큰 반응을 보였듯이,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처세 전략은 동화를 통해 섭렵했다'는 내용의 책이 나올 때가



《핑!》 스튜어트 에이버리 골드 지음 | 유명만 옮김 | 웅진원스 | 219쪽 | 값 9,800 원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우화적인 내용을 스토리라인으로 잡은 책들을 얼른 훑아 보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경호》 《선물》 《마시멜로 이야기》 《핑!》에 이르기까지 그 수가 적지 않다. 그리고 이제는 국내 필자에 의해 씌어진 《배려》라는 책까지 소개되어 이 분야의 책이 자기계발 처세 분야를 뛰어 넘어 이제는 전 분야의 도서들 중에서도 중심에 자리하는 큰 책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을 맞았다.

그렇다면 많은 독자들이 우화를 소재로 한 자기계발 처세서에 유독 강한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분량이 그다지 길지 않아 짧은 시간 내에 읽을 수 있고, 또 내용이 흥미롭고 재미있어 책읽기에 지루하지 않아서일 것이다.

지금 우리 출판시장에서는 《핑!》(열망하고, 움켜잡고, 유명하라)가 작년 가을에 선보인 《마시멜로 이야기》와 더불어 우화적인 내용을 담은 자기계발서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마시멜로 이야기》도 그렇지만 《핑!》 역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나 《선물》 등이 해외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가의 책인 것에 비해, 그 작가나 책의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시장에서는 크게 뜨고 있다.

얼핏 보아도 《핑!》은 독자들이 맘에 들어 할 만큼 산뜻한 장정과 정갈한 편집이 깔끔한 식탁 위에 차려진 맛깔스러운

음식처럼 신선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학창시절 끼고 살던 참고서처럼 본문 중 주요내용은 별색으로 처리되고, 본문 중간 중간과 권말에는 부록으로 역자에 의해 이 책 내용의 핵심 메시지까지 잘 정리되어 있어, 조금 오해하면 학력고사 직전에 봤던 '실전 마무리 핵심 체크'를 다시 보는 친근함마저 느끼게 한다. 이것이 이 책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이다.

《핑》은 서서히 메말라 가는 연못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새로운 곳을 찾아 길을 떠나는 '핑'이라는 개구리가 우연히 만난 부엉이를 스승으로 삼고 그로부터 십수 개월 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큰 가르침을 받아 마침내 삶과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우화형식의 자기계발 처세서다.

전반적으로 괜찮다. 그리고 내용 후반부에는 극적인 위기와 반전이 있어 읽을 맛도 있는 책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책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와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와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주위에 권해도 좋을 책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핑》을 꼼꼼히 읽어보면 아쉬운 부분도 발견된다.

먼저, 이 책은 대부분의 우화가 단순한 소재를 통해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스테레오 타입의 인상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스토리라인 상에 나타난 이야기 소재는 진부하다. 이 책은 한마리 개구리가 행복(지혜)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서고, 우연히 스승을 만나고, 그리고 이러 저런 상황을 거쳐 자신이 뜻하는 바를 얻는 과정을 담은 정형화된 구조를 담고 있다. 더욱 아쉬운 것은 개구리 핑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과정 속에서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치열한 고민과 갈등이 이 책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저 부엉이가 알려주는 대로만 따라갈 뿐이다. 이는 우리 인간이 갖는 보편적인 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리얼리티의 부재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진정한 행복의 땅을 찾아 나서는 목적의 배경에 대해 독자에게 던지는 정보가 부족하다. 핑은 그저 연못의 물이 말라가고 함께 살아가던 생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곳을 떠날 생각만 했을 뿐이지,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캐묻거나 고민하지 않는다. 또한 황폐화되어 가는 환경을 개선해보려는 노력도 없으며, 그저 주어진 환경을 초월해 더 나은 곳을 찾아 떠날 뿐이다. 그렇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보는 생략되어 있다. 단순히 더 나은 행복의 장소를 찾아 떠날 뿐이다. 이 부분이 이 책이 갖는 가장 큰 결점 중의 하나이다.

《핑!》은 독자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대단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자연스런 독서의 흐름을 깨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이 책의 저자인 스텐더트 에이버리 폴드는 프롤로그에서 “이 이야기가 실화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책은 엄연히 우화적 기법을 차용한 자기계발서이기 전에 한 편의 우화이다. 필자가 오판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 이 책은 이야기 진행 도중에 화자가 본 궤도를 이탈하며 독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고 있다는 인상을 떨치기 어려운 대목들이 군데군데 나온다. 그러나 이 책이 우화를 소재로 한 자기계발서라는 점을 십분 감안하고 이해하며 읽어가다 보면 이번에는 느닷없이 화자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 출몰한다. 그 난데없는 도깨비는 본문 중간 중간에 끼어들어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내용에 대한 키워드를 요술방망이처럼 들고 등장한다.

이 대목에서 나는 그것이 독자를 배려하는 것인지 아니면 독자의 수준을 무시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것은 우화의 특징이자 개성이기도 한 상징이나 은유적 표현을 독자의 몫으로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해제하여 본래의 텍스트가 가져야 할 자존심의 울타리를 무참히 허물어버리는 처사로 보인다. 또한 이것은 독자가 누려야 할 사유의 기회와 상상의 기회를 박탈하고 모든 것을 주입식으로 물어 넣어주는 것으로 비쳐져 독서를 하는 과정에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내용이 길어 두꺼운 책을 싫어하는 독자나 혹은 일상이 바빠 한 권의 책을 고를 때 키워드가 정돈되고 핵심정리가 잘 된 책을 주로 원하는 독자가 많은 우리 출판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이 책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훌륭한 책이다. 그러나 단어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 그리고 전체 텍스트에 숨겨진 상징과 암시 등을 곱씹고 사유하는 것을 즐기는 독자들에게는 다소 싱거운 책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